

KCSE 2026 개최 후기



• 이주용 교수
UNIST

2026년 2월 4일부터 2월 6일까지 UNIST에서 제28회 한국 소프트웨어공학 학술대회(KCSE 2026)가 개최되었습니다. 제가 조직위원장을, 같은 학교의 김미정 교수님께서 학술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소사이어티 회원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신 덕분에 대회를 무탈하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학회에 참석하신 분들과는 함께 행사를 되돌아보고,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지면으로나마 학회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KCSE에 익숙하신 독자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하여, 이번 대회의 특징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KCSE 2026 특징 1: 장소

이번 대회는 울산과학기술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KCSE가 대학에서 개최된 것은 2002년 서울대학교에서 개최된 이래 24년만에 처음입니다. 또한, 스키장 리조트가 아닌 곳에서 개최된 것도 24년만에 처음입니다. 오랜만에 대학에서 열리는 대회인 만큼, 학회 참가자들이 <<지적 유희>>를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년보다 많은 기초연설 세션을 배치하여 참가자들이 매일 새로운 각도에서 소프트웨어공학을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고, IITP의 김태호 PM님을 모시고 <<AI-Native SW 산업 혁신 기술 개발 사업>>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시가 가져오는 소프트웨어공학의 변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지적 유희>>만을 추구한 것은 아닙니다. 대학은 지성의 장소이자 낭만의 대명사입니다. 참가자들이 낭만도 만끽하실 수 있도록 첫날 저녁 식사는 태화강 국가정원 근처에서 기호에 따라, 꾸꾸미 정식, 중화 요리, 감자탕 중에 원하시는 메뉴를 선택해 드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식사 후에는 자유시간을 갖고 태화강국가정원을 산책하거나 근처 카페에서 담소를 나누는 등 여유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KCSE 2026 특징 2: 주제

이번 KCSE의 주제는 <<소프트웨어공학 가치의 확산: DevSecOps, MLSecOps, 그리고 그 너머>>였습니다. 이 주제에 맞추어 다음의 세 가지 기초강연이 진행되었습니다.

1. 학회 첫째 날에는 LG 전자 webOS SW 개발그룹 DevOps개발실장인 박인욱 상무님께서 **“AI-Native DevOps: What Should We Do —**

Accelerating Software Engineering with Shift-Left, CI/CD, and IDP”를 주제로 기초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DevOps를 비롯한 소프트웨어공학의 가치와 원칙이 현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특히, AI 기술의 활용이 확대될수록 소프트웨어공학의 기본에 충실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기준 확립이 중요하다는 취지의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2. 학회 둘째 날에는 보안 분야의 권위자이신 고려대학교 이희조 교수님께서 **“보이지 않던 소프트웨어를 투명하게: SBOM과 취약점 관리가 던지는 질문”**을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소프트웨어 보안 관리를 SBOM(Software Bill of Materials)을 매개로 어떻게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3. 학회 마지막 날에는 설명가능 AI의 대표적인 연구자이신 KAIST의 최재식 교수님께서 **“설명가능 인공지능을 통한 대형 인공지능 모델의 기능 및 안전성 확인”**을 주제로 기초 강연을 해 주셨습니다. 전통적인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AI 모델의 품질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마, 기초 강연을 모두 들으신 참가자분들은 <<소프트웨어공학 가치의 확산>>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KCSE 2026 특징 3: 조직위원 구성

이번 대회에서는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각 트랙별로 별도의 위원장을 배정하였습니다. 학술 위원장을 맡으신 UNIST 김미정 교수님 외에도, POSTECH 배경민 교수님께서 튜토리얼 위원장, 성신여자대학교 강종구 교수님께서 신진연구자 세미나 위원장을 맡아 주셨습니다. 또한, 현재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 총무를 맡고 계신 충북대학교 홍신 교수님께서 재무 위원장을 맡아 재무 관리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UNIST의 김영태 박사과정생과 한동대학교 남재창 교수님께서 웹 위원장을 맡아 학회 웹페이지 관리를 해 주셨습니다. 특히, 남재창 교수님은 역대 KCSE 웹페이지를 취합하여 다음의 포털 링크를 통해 손쉽게 볼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https://kcse.sigsoft.or.kr/>

학회 종료 시기와 소식지 3월호 원고 마감 기한이 거의 붙어있는 관계로, 각 위원장님의 회고를 취합해 신지 못해 몹시 아쉽습니다. 모두 성심을 다해 준비를 해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KCSE 2026 특징 4: 경품 추천

KCSE의 전통에 따라 이번 대회에서도 폐회식 때에 경품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경품 내용에 변화를 주었는데, 제가 선정한 책 6권을 2단계 추천(곧 설명 드리겠습니다)을 통해 나누어 드렸습니다. 재미를 위해 경품 행사 시작 전에는 책의 제목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첫번째 추천 단계에서는 룰렛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참석자 6명을 무작위로 선정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아래 화면과 같은 질문을 선정된 6명에게 드려, 응답에 따라 책이 골라지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비인물분야와 소프트웨어공학을 고르신 분께는 차성덕 교수님의 소프트웨어공학 이야기 책이 수여되었습니다.

책 고르기 게임

어떤 종류의 책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인물 분야

비인물 분야

책 고르기 게임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수학

소프트웨어공학

천문학

소회 및 의견

앞서 언급했듯이 이번 KCSE는 24년 만에 처음으로 대학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또한, 13년 만에 평창 한화 리조트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열린 대회이기도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이미 잘 정립해 놓은 학회 개최 프로세스를 벗어나 대회를 준비하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 용기보다는 13년만에 한화 리조트에서 “기출”을 결단하신 이정원 회장님과 이사진 분들에게 더 큰 용단과 책임감이 필요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이번 KCSE의 UNIST 개최를 제안해주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이정원 회장님을 비롯한 소사이어티 회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세운 원칙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KCSE의 전통을 유지하기. 둘째,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개선을 도모하기. 얼핏 보기에는 이 두 가지 원칙이 상충되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튼튼한 틀이 필요한 법입니다. 이번 대회를 준비할 때에도 기존 대회 준비 절차를 튼튼한 뼈대로 활용하였습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맞춰 필요하다면 뼈대 안의 내용을 바꾸는 데에는 주저하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이번 KCSE의 대학 개최가 일회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평창을 비롯해 다양한 곳에서 KCSE 참석자 분들을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KCSE와 소프트웨어공학 소사이어티의 지속적인 발전을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KCSE 2026 폐회식